

파워맨 꿈꾸는 '꼬꼬마'

상무 김선빈, KIA와 퓨처스리그 출전

부쩍 어른스러워진 '꼬꼬마 키스톤'의 유격수 담당 김선빈(상무)이다.

김선빈은 28일 합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2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장했다. KIA와의 주중 3연전을 위해 고향을 찾은 김선빈은 우천으로 취소된 27일 경기를 빼고 두 경기에서 8타수 1안타 2타점진을 기록했다. 시즌 초반 퓨처스리그를 평정하던 타격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지만 김선빈은 "더 큰 선수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선빈은 "지금은 다음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다. 주로 밀어줬었는데 당겨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시험해보고 있다. 뭔가 얻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실패를 하면 다시 도전해보면서 더 좋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영수 타격 코치 등 상무 코칭스태프가 김선빈의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선빈은 "편하게 긍정적으로 야구를 하라고 주문하신다. 기술적인 부분도 달라졌지만 무엇보다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며 "또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 맞추는 것만 잘하던 타자였는데 파워를 늘리고 싶어서 웨이트를 많이 했다. 웨이트를 한다고 반드시 파워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하고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간절함'도 김선빈을 바꿨다. 김선빈은 "1군 무대에서 뛰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됐다. 입대 전에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경기를 제대로 뛰지 못하고 와서 그런 마음이 더 크다"며 "돌아갈 생각을 하면 기쁘기도 하지만 잘하고 가야한다는 부담감에 요즘 생각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잘 돌아가야 하는 이유에는 김기태 감독의 특별 배려와 동료의 마음 그리고 팬들의 응원이 있다.

김선빈은 "내 백남버를 감독님께서 임시 결번으로 지정해주셨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팀에 내가 이런 선수였나하는 생각이 뿌듯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도 돼나며 반성도 했다"며 "그래서 더 잘해서 돌아가야 한다고 마음

먹었다. 감독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준비 안 돼서 나가면 안 된다. 배려 해주길 잘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웃었다.

김선빈은 시즌 개막전 '캡틴' 이범호의 연락도 받았다. 몸 준비 잘하고 돌아오라는 선배의 이야기도 김선빈에게는 올 시즌을 더 잘 보내고,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됐다.

김선빈은 "작년에 팀이 5강에 가라고 응원을 많이 했다. 백업층이 두터워 지고 팀이 잘나가면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하겠지만 팀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우선이다. 올 시즌에도 팀이 가을 잔치를

힘 키우러 웨이트 집중

실패하고 도전하는게 중요

떠난 후 1군의 소중함 느껴

부상 없이 시즌 준비 잘 해

감독·동료 배려에 보답할 것

해서 나도 뛰어보고 싶다. 물론 당연히 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회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 경기도 쟁겨본다. (김)주행이 형이 유격수로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한번 통화를 했는데 원래 움직임이 많은 자리라고 응원을 했다"고 말했다.

떠나 있으면서 절이 든 김선빈은 어느새 종교감 선수가 된다. '꼬꼬마 키스톤'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하는 김선빈은 더 의젓하게,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돌아갈 생각이다.

김선빈은 "똥공 처리가 약인데 야간 연습을 하면 실수 없이 잘하고 있다. 실전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부담감 덜고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가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부상 없이 잘 뛰고 돌아가고 싶다. 매년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다"며 "군대에 와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자기도 바뀌었는데 더 선배다운 모습으로 복귀하겠다"고 언급했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상무에서 군복무중인 내야수 김선빈이 28일 합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친정팀 KIA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 앞서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날짜	경기	경기장
1	4월 8일	캔자스시티 로열스
2	4월 16일	LA 에인절스
3	4월 18일	밀워키 브루어스
4	4월 19일	밀워키 브루어스
5	4월 27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강풍 뚫고 135m 박병호 5호 홈런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또 한 번 엄청난 괴력으로 사령탑의 입을 짝 벌어지게 했다.

박병호는 2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서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6으로 뒤진 6회말 추격의 솔로포를 터트렸다.

박병호는 클리블랜드 우완 선발 조시 톨린의 조구 시속 137km짜리 컷 패스트볼을 받아쳐 가운데 담장 뒷벽을 때리는 대형 아치로 연결했다.

미네소타 구단이 측정한 이 홈런의 비거리는 135m(444피트). 지난 17일 처낸 시즌 2호 홈런의 비거리(140.8m)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날 경기가 추축하고 쌀쌀한 날 속에서도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이날 경기는 우천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40분 가량 지연됐다. 경기 후반에 대비가 흠뻑렸고, 담요를 덮은 관중들이 적잖게 눈에 뭉 정도로 날씨 또한 상당히 추웠다. 일반적으로 공이 습기를 머금으면 타구의 비거리가 떨어지는 편이다. 더군다나 이날 타깃필드는 외야에서 내야 쪽으로 강한 맞바람이 불고 있었다.

미네소타 지역지 스타트리뷰는 "박병호의 6호 홈런은 외야의 강풍을 가르고 440피트 이상을 날아갔다"고 전했다.

폴 몰리타 감독은 "출고 쌀쌀한 날에는 타구가 잘 날아가지 않는다"며 "하지만 박병호의 타구는 백드롭(검은 배롱막)을 맞았다. 박병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영민 임의 탈퇴 해제...50경기 출장 정지

음주운전 사고로 임의 탈퇴됐던 투수 손영민(29)이 KIA 타이거즈 선수로 복귀한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8일 KIA 구단이 신청한 손영민의 임의 탈퇴 복귀를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팀의 주축 선수로 활약했던 '잠수함' 손영민은 지난 2012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9% 상태에서 운전 중 추돌 사고를 냈었다. KIA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손영민에 대해 임의탈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손영민은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KIA는 손영민이 지난 6일 군복무를 마치고 팀으로 복귀, 복귀를 위한 문을 열어주었다. KBO의 이날 결정에 따라 손영민은 3년7개월 만에 KIA 선수 신분을 회복하게 됐지만 바로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는 없다.

KBO는 복귀허가 후 야구회관 5층 회



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KBO 규약 제151조 '폼위손상행위' 3호에 따라 손영민에게 올 시즌 KBO 리그 50경기 출장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제재는 복귀가 허가된 28일부터 적용되며 소속팀이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KBO 리그 정규시즌 및 KBO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KBO는 "임의탈퇴가 KBO의 제재가 아니다"며 "향후에도 임의탈퇴가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후 KBO의 제재 없이 임의탈퇴로 공시된 선수에 대하여 복귀 시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KIA 후원사 브랜드 데이

상품 30% 할인 등

KIA 타이거즈가 3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 경기에서 선수단용품 공식 후원사인 '마제스틱 코리아'의 브랜드 데이를 개최한다.

KIA와 마제스틱 코리아는 이날 경기 중 전광판과 SNS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당첨된 관객에게 마제스틱 용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투수 홍건희와 내야수 박찬호는 일일 판매원으로 팬들을 만난다. 챔피언스필드 5번 출입구에 위치한 마제스틱 클럽하우스 스토어에서 일일 판매원으로 변신한다. 또 이날 마제스틱 클럽하우스 스토어와 온라인몰 라커다움(tigers.lockerdiium.com)에서는 모든 선수용 상품을 3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제스틱 코리아 페이스북(www.facebook.com/majestic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슈퍼 루키 없어도 KLPGA 대형 신인 풍년이네

해마다 뛰어난 신인이 많이 유입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신인왕 타이틀 따기는 쉽지 않다.

역대 신인왕 가운데 대다수는 투어 데뷔 이전부터 스타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여자프로골프에는 '슈퍼 루키'는 없다. '슈퍼 루키'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아마추어 시절에 초청 선수로 출전한 프로 대회에서 우승 한번은 거뒀어야 하는데 작년도, 올해도 그런 선수는 없다.

대신 신인왕 경쟁이 유례 없이 뜨겁다. 실력이 엇비슷한 우수한 신인이 여럿이라 그렇다. 2부투어 상금왕 박지연(21·삼천리)과 시드전 수석 합격자 이효린(19·미래에셋) 그리고 국가대표 에이스 이소영(19·롯데) 등이 '대형 신인'으로 꼽힌다.

작년 2부투어에서 4차례 우승을 차지한 박지연이나 압박감이 메이저대회를 능가한다는 시드전에서 압도적인 스코어로 1위를 차지한 이효린은 장외에서 실력을 검증받았다. 이소영은 나이는 어

2부투어 상금왕 박지연

시드전 수석 합격 이효린

국가대표 에이스 이소영

뜨거운 신인왕 경쟁

리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를 순하게 겪었다.

'잠룡'이 수두룩하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정은(20·토니모리)과 김아림(21·하이진로)은 '숨은 진주'다. 순천 출신의 이정은은 지난해 광주 유니버시아드 2관왕이다. 그는 유니버시아드 금메달을 따려고 프로 전향을 미뤘다.

이정은은 유니버시아드를 마치고마자 준비원 선발전, 정회원 선발전, 시드전을 순 가쁘게 치른 끝에 투어에 입성했다. 김아림은 지난해 2부투어에서 박지연에 이어 상금랭킹 2위에 올랐다.

28일 현재 신인왕 레이스에서 이들은 1~4위에 포진했다. 하지만 포인트 차

이는 미미하다. 당장은 순위가 큰 의미가 없는 혼전이다. 대회 때마다 순위가 바뀔 정도다. 선두는 이정은이다. 이정은은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6위를 차지한 데 이어 삼천리 투게터 오픈 14위,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12위 등 고른 성적으로 신인왕 포인트를 착실하게 쌓았다.

올해 신인왕 경쟁에 열기가 더해진 건 박지연, 이효린, 이소영, 이정은, 김아림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대형 신인'뿐 아니라 '복병'이 가세해서다. 신인왕 레이스에 변수로 등장한 김지영(20·울포유)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바다에서 치고 올라온 선수다. 한때 국가대표를 지냈지만 화려한 성적은 거두지 못한 그는 준회원 선발전, 정회원 선발전에서 모두 낙방한 아픔을 겪었다. 국가대표 출신이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다연(19)도 신인왕 레이스에 뛰어 들었다.

29일 개막하는 KG·이태일리 레이디스오픈에서 이들의 각축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동아수영 남녀 배영 50m

원영준·유현지 한국新

전남수영연맹 소속 원영준(20)이 배영 50m 부문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여자 배영 50m 한국 기록도 같은 날 깨졌다. 원영준은 28일 광주 남부대 국제 수영장에서 열린 '제 88회 동아수영대회' 남자 일반부 배영 50m 결승에서는 25초07로 새로운 한국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종전 기록은 자신이 효원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세운 기록(25초08)으로, 0.01초 경신했다.

원영준은 지난 27일 열린 배영 100m에서도 대회신기록(54.44)을 내며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어 우승했다.

한편, 유현지(전북체육고)도 이날 여자 일반부 배영 50m 예선에서 28초 17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